



, 불법파견 소송취하 해야 정규직 채용 필수

인천지부 새해 투쟁 포문 열어 ... “자본은 불법 부당이득, 노동자는 내몰려”

인천지부가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2024년 첫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노조 인천지부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은 1월 24일 오후 부평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필수 발탁채용 중단, 해고자 복직, 전원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인천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불법파견 끝장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없는 공장 투쟁으로 쟁취하자”라고 외쳤다.

안대원 금속노조 인천지부장은 “지엠 자본은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정규직 채용한다는 제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안 지부장은



“20년 이상 싸웠다. 연대투쟁으로 끝을 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호인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은 “1월 31일이면 해고 통지서를 받고 공장에 갈 수 없다”라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자본은 불법으

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한 공장 한 울타리에서 노동자로서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투쟁하겠다”라면서 “지부가 비정규직 동지들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소통하면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년째 불법으로 제조업 하청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하청업체를 폐업해 해고하고,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회피로 일관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 거부하면서 소송 취하지만 정규직 발탁 채용한다는 핏수를 부리고 있다.

· 딤채노동자 체불임금 1,000억 원 넘어

해결·박영우 회장 구속추구 ... “절박하다. 4대 보험 끊겨 병원 못 가”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1,000여억 원이 넘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은 박영우가 골프장 매각대금 등을 한 푼도 체불임금 해결에 쓰지 않았다며 구속수사를 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전자지회, 위니아딤채지회가 1월 22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우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법정관리 3개월이 넘어가는데 박 회장은 무능 부도덕을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만 빈털터리가 됐다”라고 규탄했다.

지부와 지회들은 “박영우가 매각이든 청산이든 법 절차를 통해 수백억 원의 채권을 정리하고 새출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면서 “체불임금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기업회생 법정관리 제도가 무능·부도덕 기업의 면죄부가 되고, 노동자 생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랄한 제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위니아전자 소속 노동자들은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벌인 ‘박영우 구속, 체불임금 해결 서울본사,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상경투쟁’을 23일부터 이어간다”라며 “임금체불 중 2022년 연봉 76억 원을 챙긴 박영우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4대 보험이 끊겨 병원도 못 가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절박하다”라고 호소했다.

대유위니아그룹 중 임금체불 사업장은 다섯 곳이다.

, 한국오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 건 확정

2 중집 농성장에서 열어 ... 2월 1일 노조 결의대회, 지부별 농성 등 결정

1월 23일 13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한국오티칼하이테크지회 농성 현장에서 열었다. 노조 중집 위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농성 중인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2부장을 격려, 응원했다.

노조는 이날 중집회의에서 2월 1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지부별 순환농성 등 한국오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 건을 확정했다.